

# “뒤늦게 도착한 편지... 텍스트 지층 파고들어야”

제주포럼서 4·3연구소 세션  
제일 김시중 시인 기조강연  
日 호소미 교수 주제발표서  
장편 시집 '니이가타' 주목  
시인의 세계문학 면모 짚어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이창의 제주대 교수의 지정 토론이 잇따랐다. 호소미 카즈유키 교수는 '일본으로부터 경계를 묻다-김시중 선생의 표현을 축으로'란 주제 발표에서 김시중의 문학을 "일본어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일본문학'이라는 범주를 넘어서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문학으로 분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국민문학'으로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오고 있다"며 "세계문학"으로 표현했다.

호소미 교수는 이날 김시중 시인의 장편 시집 '니이가타'에 주목했다. 이 시집은 대부분 1960년 전후에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은 10년 후인 1970년에 이루어졌다.

그는 "10년 이상 간행되지 않았던 점이나 너무 밀폐도가 높은 텍스트 이기에 우리의 이해가 쉽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니이가타'는 그야말로 늦게 배달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니이가타'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지렁이'처럼 텍스트의 딱딱한 지층을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지층을 일구어내면서



지난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주4·3연구소가 주관하는 제주포럼 4·3세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파고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김시중 선생님의 텍스트와 함께 정치, 경제, 언어, 문화 등의 경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시중 시인과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독일 시인 파울 켈란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 채 바다를 떠돌고 있는 병 안의 편지가 몇 개 있을 지 모른다"면서 "우리들은 그 편지를 읽고, 보내야 할 곳에 제대로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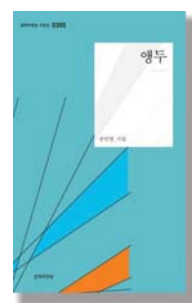
앞서 김시중 시인은 기조 강연에서 '경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짚었다. "경계란 국경이나 지세적인 구획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오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부가 버티고 선 벽의 경계입니다. 인종 차별이나 지역 차별, 신체장애자와 여성이 두려워 할 당연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그 대부분이 개개인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스스로가 쌓아 올린 벽으로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 허기져 아득해진 세상에 뜬 별과 달

송인영 신작 시집 '앵두' 삶의 풍경에 펼친 간절함

학의전당 시인선으로 펴낸 '앵두'다. 시인은 2010년 시조시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발을 디뎠고 2017년엔 제1회 서귀포문학작품 전국 공모전에 당선됐다. 앞서 출간된 시집으로 '별들의 이력'이 있다.

이번 시집에는 신림동 고시원에서 5월 어판장까지 폭이 너른 삶의 풍



경이 자리한다. 그 현장에 외로운 취입 준비생, 철장이 총각, 가진 것 성한 몸 하나 밖에 없는 공사판 인부 등이 얼굴을 내민다. '물러받은

망패기 모조리 저당 잡혀/ 터주신 삼승할망도 자릿세 내야 하는' 이 섬

의 현실('제주바오젠거리')도 눈에 들어온다. 그들이 위안을 얻는 대상은 달과 별이다. '밤껏 울고 웃으며 이제는 그러고 싶자'('달에게')하고 '별 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밝다는 것을'('별빛이 여행') 깨닫는다. 허기져 아득해진 세상에 걸리는 보름달, 푸르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별들('고시원')이 있어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붉은 꽃')가 생긴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쫓겨

함덕문화회 '함덕문학' 3호

함덕문화회가 '함덕문학' 3호를 펴냈다. 이번 호는 김관후 작가의 '분노하라 문학이여!'를 시작으로 김창호의 시 '어백을 위해'와 한문용의 시 '고뇌', 박선협 시조 '우리의 성(城)', 이수의 수필 '담배 초관(草官)' 등 회원 15명이 창작한 작품이 수록됐다. 강상돈의 시조 '빨래방에서' 등 시, 시조, 소설, 동화, 수필 등 초대 작품 5편도 담았다.

제51회 제주씨네클럽 상영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제51회 제주씨네클럽 행사가 이달 7일 오후 7시 영화문화예술센터(메가박스제주 7관)에서 진행된다. 상영작은 우디 앨런 감독이 연출한 '미드나잇 인 파리'다. 시간여행을 모티프로 파리 곳곳 명소를 담으면서 근현대 예술가를 등장시킨다. 상영 후 씨네토크에는 장편영화 '백년의 노래'를 만든 이상목 감독이 나온다. 070-4548-5367.

예술인 용자 사업 설명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달 4일 오후 4시 예술공간 이아 3층 창의교육실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예술인 맞춤형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예술인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02)3668-0234.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

일본총영사관은 제주도한일친선협회, 오이타현 해외교육지원기구와 공동으로 8월 3일 제20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1차 심사 원고 마감은 6월 28일까지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information@cj.mofa.go.jp)로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우수·장려상 수상자에게 9박 10일 일본 연수기회가 주어지고 5-8위 4명은 6박 7일 규슈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064)710-9523.

이번주(6월 3-9일)

무대 & 미술

##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미리 즐겨요

서귀포에당서 주말 전야제  
해비치해변 음악회도 열려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막이 오른다. 해변음악회, 전야제 등으로 분위기를 달군 뒤 6월 10일 개막식을 치르기 때문이다.

아트마켓 쇼케이스, 부스전시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지만 이 기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가 들어선 표선면 일대만이 아니라 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으로 가면 공짜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제주인 페스티벌 초청작이 4편에 이른다.

▶공연  
▶창작뮤지컬 '최정숙-동터져 흔저글라'=천주교제주교구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6월 3-5일 오후 3시와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9-9500.

▶온세미로 함께하는 아라마을 사랑음악회=6월 4일 오후 8시 아라야파크 남쪽 근린공원. 728-2745.

▶허튼굿 나눔이야기=전통예술 공연개발 6월 5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4693-8525.

▶버블쇼=6월 6일 오전 11시 등 문예회관. 010-3729-7555.

▶해변음악회=6월 7일 오후 7시 해비치 해변무대. 02-3019-5841.

▶제주-대구 교류음악회=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 주관 6월 7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공군군악대 초청 호국음악회인 제주=6월 7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1509.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6월 8일 오후 2시와 5시 국립제주박물관. 720-8035.

▶제주제임버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 음악회=6월 8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 760-3792.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전야제=6월 8일 오후 6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김도향, 신관웅트리오, 장필순, 뮤지컬 파가니니 갈라. 02-3019-5841.

▶제주아라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6월 8일 오후 7시 아라뮤즈

홀. 010-9119-7493.  
▶세계음악여행 '바람의 노래'=해비치아트페스티벌 초청작. 6월 8일 오후 7시 문예회관. 710-7656.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0주년 음악회=6월 8일 오후 7시 미술관 야외 공연장. 710-4300.

▶소리계떼 '소리로 타오르다'=플라멩코와 국악크로스오버 그룹. 6월 8일 오후 7시 서귀포관광극장. 732-1963.

▶이희문컴퍼니의 경기재즈프로젝트 '한국남자'=해비치아트페스티벌 초청작으로 6월 9일 오후 5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3.

▶성지교회 창립100주년 기념 음악회=6월 9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 728-1509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6월 16일까지 목·금요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 세이레아트센터. 1688-4878.

▶새연고 콘서트=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9시30분. 소금인형 출연. 760-2654.

▶김인화 초대전=6월 4-20일 현인갤러리. '환희의 수련', '생노병사' 등 연꽃 소재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747-1500.

▶강창화 개인전=6월 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문화협회 '이런 판(版)이 있나!'=6월 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한국서도협회 제주도지회전=6월 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도 서예문화총연합회전=6월 8-13일 문예회관. 710-7633.

▶정미숙 사진전 '섬의 빛·달'=6월 8-16일 서귀포예술의전당. 개막 행사는 6월 8일 오후 4시. 760-3343.

▶윤희애 작가 다음 초대전=6월 8-7월 31일 서귀포문화재단리충전소. 738-5855.

▶단오 부채전=제주문화동아리 군방도 6월 9일까지 한라도서관. 010-9980-3279.

▶내가 사랑한 미술관-근대의 걸작=6월 9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710-4300. 전선희기자

2억원 보증보험가입

올포함! NO탑+NO옵션

## 베트남전세기

다낭 / 호이안 / 후에

전세기특전 ① 5성호텔 ② 옵션(\$250)포함 ③ 특식6회

1,299,000원 → 1,199,000원

현충일 연휴 6/5(수) ~ 6/9(일)

3박5일 (출발21:30, 도착03:00)

선착순특가 여름방학

## 몽골전세기

울란바토르

1,599,000원 → 1,399,000원

7/23(화) ~ 7/28(일)

4박6일 (제주출발17:00, 제주도착07:30)

양국정부 인가조건

광복절 황금연휴. 이보다 저렴할 수 없다!

## 색다른 두나라여행

제주→말레이시아+싱가폴 5일

1,099,000원 → 999,000원

6/6(목), 6/18(화), 8/15(목)

**니하오여행사** 722-6638 hunting001@nate.com    **제주엔투어** 749-6886 kitagee@nate.com

□ 포함사항 : 항공료,호텔,차량,식사,입장료,가이드,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몽골비자비, 몽골(기사&가이드)봉사료,VAT    □ (전세기)컨소시엄 문의 : 010-2294-0592